뉴시티교회 2026 표어

예수 따르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오늘의 말씀, 세상에서 만난 그리스도 1

폐허 위에 열린 하늘

에스겔 1:1, 28, 오종향 목사

세상의 말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폴 발레리, 「해변의 묘지」(1920)

믿음의 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1927~1956, 에콰도르 순교 선교사), 일기

주일예배 11:00, 금요예배 19:30
서울 서초구 명달로 46 서신아파트상가 2층 교육관, 3층 예배실
담임 오종향 목사, www.newcity.or.kr

주일 예배 순서

오전 11:00

묵도와 부름 — 인도: 오종향 목사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예레미야 29:12-13, 우리말성경)

사도신경

찬양 — 찬양팀

위대하신 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합심 기도

고난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질병으로 힘든 이들을 위해
네팔 산사태 피해 가족들을 위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이
살아나도록

신앙과 삶 나눔

성경 봉독 — 에스겔 1:1, 28 — 다함께 기립

설교 — 폐허 위에 열린 하늘 — 오종향 목사

결단의 침묵

찬송과 기도

보혈을 지나
부흥

봉헌

안내

축도

기도나 상담이 필요한 분은 담임목사 또는 소그룹 조장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스겔 1:1, 28 (우리말성경)

1. 30년째 되는 해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 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는데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28.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과 같이
그의 주변이 그렇게 밝게 빛났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말하는 이의 목소리가 내게 들렸다.

다같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그룹 나눔 (예배 후 함께)

"무너진 자리에서 하늘을 본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

1. 발견

에스겔은 모든 것이 무너진 바벨론 강가에서 도리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막힌 것 같던' 자리에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게 된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2. 성실

주님은 날마다 성실하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지루한 일을 귀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꾸준히 반복하는 '지루하지만 귀한 일' 하나를 소개해 주세요. 어떤 순간에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3. 우선순위

짐 엘리엇은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끝을 미리 그려 본다면, 그때 내 곁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위해 이번 주 내려놓고 싶은 한 가지를 나누어 주세요.

교회 안내

- **환영과 안내**
  - 예배 후 점심 교제와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 오늘 점심: 감자탕, 구운 달걀, 김치·깍두기·파김치, 아삭이고추, 가지나물, 굴비고추장 (오목사 가정) · 아이스크림 케이크 (오연총 드림)
  - 주일학교 — 오늘 오전 10시, 2층 교육관, 9월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회
- **오늘의 섬김**
  - 안내위원 — 이번 주일: 윤재연, 이수민 · 다음 주일: 옥진복, 손이숙
  - 성경봉독 — 이번 주일: 이시원 · 다음 주일: 김하람
  - 청소정리 — 이번 주일 조이 조: 우문주 강자은 김순영 김혜영 배지은 장수정 · 다음 주일 동행 조: 김하람 안나현 오연총 이세린 이시원 박윤준 신정혜 최은총
- **9월 주일 예배: 《세상에서 만난 그리스도》**
  - 9/13: 나를 찾아오신 목자 (겔 34:11~16, 23)
  - 9/20: 다시 돌아오는 영광 (겔 43:1~7)

9월 금요 예배: 《세상에서 드리는 기도》

- 9/11: 내게 맡기신 한 영혼 (겔 33:1~11)
- 9/18: 옷이 아니라 마음을 (욜 2:12~17)

교회 안내

- **정기 모임 일정**
  - 제직회: 9/20 (비정기, 새생명축제 준비) · 정기 10/18, 12/20 (짝수달 셋째 주일 13:15-14:30)
  - 조장 모임: 9/13, 10/11, 11/8, 12/13 (매월 둘째 주일)
  - 재정팀 모임: 매월 첫째 주일 오후 2:30
- **함께 만들어가요**
  - 새생명축제(전도집회) 11월 15일 주일 — 태신자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 주일 중보기도모임 — 오전 10:30, 2층. 새생명축제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 예배당 간판 정비 — TF 강자은, 김순영, 박태원, 손이숙. 기도해 주세요.
  - 가을 리딩지저스가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말씀 한 장으로 하루를 여세요.
  - 아이들을 함께 교육할 교사에 지원해 주십시오. 문의: 오종향 목사
  - 주일 아침 식사 준비와 리딩지저스·주보 접는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금요예배 순서

저녁 7:30

묵도와 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 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이사야 62:6, 우리말성경)

사도신경

찬양

합심 기도

성경 봉독 다함께 기립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에스겔 33:11, 우리말성경)

설교 내게 맡기신 한 영혼 오종향 목사
(세상에서 드리는 기도 2)

찬양과 기도

축도

자유 기도

오늘의 복음

바벨론 강가, 빼앗긴 땅.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이 계셨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은 훗날
말구유와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온몸으로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에스겔 1:1, 우리말성경)

오늘의 찬송 이야기 — 「부흥」

오늘 결단의 침묵 뒤에 부르는 「부흥」(고형원 작사·작곡, 1997)은 황무한 이 땅을 하늘의 하나님께 내보이며 긍휼과 회복을 구하는 노래입니다. 땅의 폐허를 부인하지 않고, 그 폐허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에스겔의 자리와 같습니다. 이 곡이 기대고 있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
> 역대하 7:14 (우리말성경)

뉴시티교회 안내

예배	주일예배 11:00, 금요예배 19:30
주소	서울 서초구 명달로 46 서신아파트상가 2층 교육관, 3층 예배실
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3-606016 뉴시티교회
교역자	담임 오종향 목사 · 주일학교 최은총 전도사
홈페이지	www.newcity.or.kr



오시는 길
QR을 찍으면 지도가 열립니다.

아침 루틴 — 하루의 첫 자리

성실은 주님이 먼저 보이신 태도입니다. 하루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	성경읽기	예수님 묵상	일상 간구	태신자 중보
3분	10분	10분	10분	3분

당신을 위한 자리

오늘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교회를 찾으셨거나,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신가요? 이 자리는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대화가 필요한 분,
기도가 필요한 분,
은혜가 필요한 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와 소그룹과 함께라면,
하나님을 풍성히 알게 됩니다.
멀리 갈 수 있는 강건함이 생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히브리서 10:24-25 (우리말성경)

뉴시티교회 ___ 월 ___ 일 작성

이름

어떻게 오셨나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궁금해서, 등록할 교회를 찾으려고, 평안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알게 됐나요?

지인,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기타

전화번호

이메일

절취선

방문자 카드

뉴시티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오시는 길

작성해 주신 카드는 예배 후
예배당 입구의 **새가족안내팀**에게
전해 주세요.